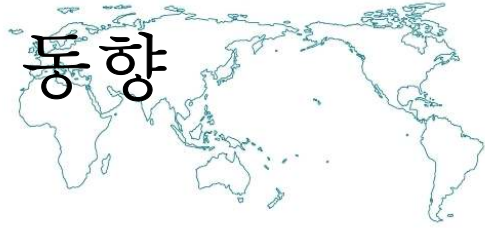


해외 ICT 표준화 동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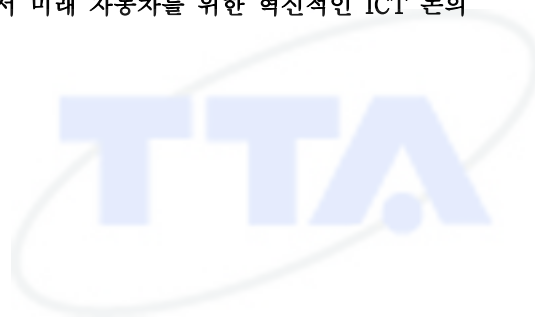


2014. 3

2nd Week

목차

1. NIST, 표준 서비스 교육과정 개발 프로그램 수용
2. ISA, 전자 조달 위한 새로운 오픈 소스 툴 지원
3. ITU, 제네바 모터쇼서 미래 자동차를 위한 혁신적인 ICT 논의



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
Telecommunications Technology Association

▷ 본 자료의 게시처 : TTA 홈페이지 > 자료마당 > TTA간행물 > 표준화 이슈 및 해외 동향

1

NIST, 표준 서비스 교육과정 개발 프로그램 수용

- 보도날짜 : 2014. 3. 5
 - 출처 : ANSI
 - 사이트 : http://www.ansi.org/news_publications/news_story.aspx?menuid=7&articleid=3888
-
- 미 상무부(DoC)의 미국국립표준기술연구소(NIST)는 미국의 고등교육기관 내 표준화 관련 수업의 생성 및 구현을 위해 재정을 지원하는 표준 서비스 교육과정 개발 프로그램에 애플리케이션을 수용하기 시작함
 - 프로그램에 따라 최소 1년 이상 1년 6개월 미만 지속되는 2-8개의 프로젝트들 중에 각 \$25,000-75,000을 수상하게 될 것
 - 가장 빠른 수상 예상 시기는 2014년 7월 1일
 - 수상자들은 표준화의 중요성, 가치 및 이익에 초점을 맞춘 학사 또는 석사 과정을 개발하고, 미국 대학의 기존 교육과정에 대한 표준 관련 콘텐츠 통합을 지원할 지속 가능한 접근 방식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
 - 참가자들은 관련 이해 관계자들과 프로젝트 정보를 공유하여 공개적으로 프로젝트의 최종 결과를 발표하고, 2015년 가을 메릴랜드 게이더스버스에서 열리는 일일 워크숍에 참여해야 함
 - 미국 전 지역의 모든 대학 및 고등 교육기관들은 미국에 기반을 둔 비영리 단체, 상업 기구 및 주·지방·원주민 부족정부와 함께 신청할 수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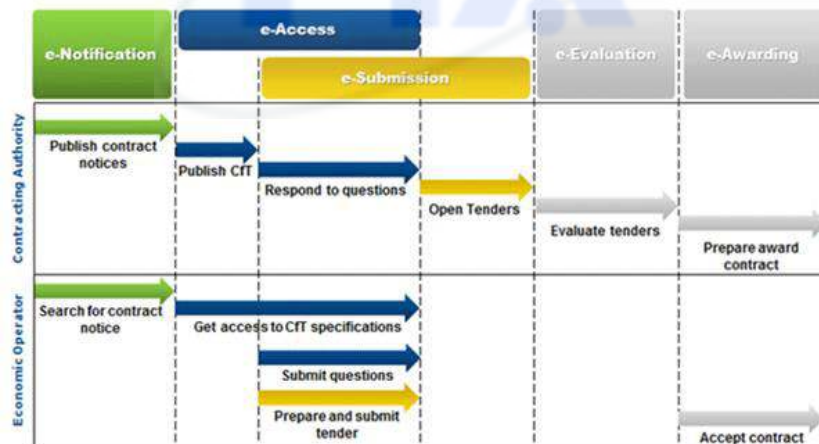
2

ISA, 전자 조달 위한 새로운 오픈 소스 툴 지원

- 보도날짜 : 2014. 3. 10
- 출처 : European Commission
- 사이트 : <http://ec.europa.eu/isa/news/2014/e-procurement-new-open-source-tool>

■ ISA 프로그램은 회원국들의 전자 조달 채택을 가속화하기 위한 오픈 소스 툴인 e-PRIOR 개발을 지원하고 있음

- 후불 툴인 e-Ordering과 e-Invoicing은 이미 성공적으로 개발되어 유럽위원회 내에 구현되고 있음
- e-Submission 솔루션의 최신 개발 버전인 e-PRIOR는 업체가 입찰 공고를 위해 입찰을 준비 및 제출할 수 있게 하며 계약기관이 그러한 전자 입찰을 수신, 처리하게 함으로써 선불 과정 솔루션 또한 제공함
- e-PRIOR의 장기적 목표는 엔드-투-엔드 전자 조달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



■ 공공 행정에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은, 인터페이스 사양을 준수하는 계약기관이 입찰 공고를 하는데 쓸 수 있는 그 어떤 e-Access 솔루션과도 통합될 수 있음

■ e-Submission 솔루션은 현재 제한 입찰, 협상 입찰과 같은 두 단계 입찰 및 매입 의향서 공고 등의 다른 유형의 입찰들에 대하여 개량되고 있음

3

ITU, 제네바 모터쇼서 미래 자동차를 위한 혁신적인 ICT 논의

- 보도날짜 : 2014. 3. 11
- 출처 : ITU
- 사이트 : <https://joinup.ec.europa.eu/community/osor/news/uk-gov-garners-400-comments-odf-proposal-extends-deadline>

- ITU의 미래 네트워크 자동차 심포지엄 참석자들은 다음 10년 내 그들 중 최소 일부는 자동 운전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 선언함
 - 전 카레이서와 인기 TV 프로그램 Fifth Gear의 출연자가 진행을 맡아 텔레비전으로 방송된 토론에는 델파이 최고기술책임자 제프리 오웬스, 국제자동차연맹(FIA) 회장 장 토드, ITU 사무총장 하마돈 투레, 유엔유럽경제위원회(UNECE) 대표 에바 몰나르, Ygomi 의장 러셀 쉴드가 참석함
- 기술 세션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자동 운전 기술 구성요소가 가까운 장래에 출시될 수 있을 정도로 성숙한 수준에 도달 했다는 데 동의함
 - 산업계는 향후 6년 이내에 고속도로와 같은 특정 환경에서 자동 운전의 상업적 배포 시도가 있을 것이라 예측함
 - 국제 기술 표준 협약과 규제 요구조건 시행은 이미 현실화 진행 중임
- 참가자들은 UNECE와 협력하는 ITU에 완전 자동 운전의 향후 단계에 필요한 활동을 파악하도록 자동차 제조업체 고위 임원 간 대담을 열어줄 것을 요청함
- 로라 허먼이 중재한 토론은 글로벌 도로 안전을 획득하고, ICT 컨버전스 활용으로써 도로 사망률 제로를 달성하기 위한 자동 기술을 이끌어 내는데 초점을 맞춤
 - 이 토론에는 양방향 미래 네트워크 자동차 심포지엄을 지원하는 앤호이저부시 인베브의 장 토드와 스콧 랫잔이 참여했음